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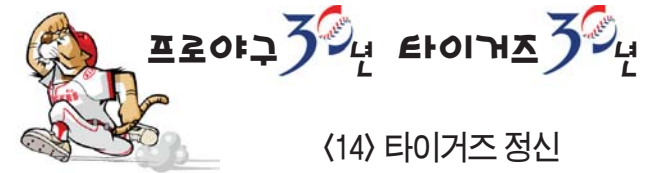
최희섭 이종범 김상훈

‘빅3 귀환’

부상 최희섭·이종범·김상훈 복귀 KIA ‘천군만마’

부상병들의 귀환으로 KIA 타이거즈의 순위 싸움에 속도가 붙었다. 부상으로 재활을 해왔던 KIA 타이거즈의 ‘빅3’ 최희섭과 ‘말형’ 이종범이 19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앞서 1군 엔트리에 재등극했다. 최희섭은 지난달 23일 허리 통증으로 엔트리에 제외됐었고, 이종범은 뒷목 근육통으로 지난 4일 등 록이 말소됐다. 재활군에서 몸을 만들어온 두 선수는 16·18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2군 경기에서 출전해 복귀를 위한 최종 테스트를 받았었다. KIA는 어깨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안방마님 김상훈이 17일 예상보다 빨리 1군에 복귀한다 이어 최희섭·이종범이 돌아오면서 타선이 제자리를 잡게 됐다. 최희섭의 합류로 한방의 위력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조범현 감독은 최희섭이 자리를 비우면서 이범호를 4번으로 배치하고 김원섭을 3번에 투입해 효과적인 승부를 펼쳤다. 1루 공백은 차세대 우타 거포 김주형을 활용해 채웠다. 이범호의 타점 반응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원섭·

김주형이 선전을 해주었고, 부진을 거듭했던 김상훈까지 해결사로서의 부활 조짐을 보이면서 주전 4번 타자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팀 타선은 활활 타올랐다. 이용규의 복귀로 타격에 탄력이 붙은 KIA는 최희섭이 4번 자리에서 힘을 실어 준다면 이범호-최희섭-김상훈-김주형으로 이어지는 파괴력있는 한방 라인까지 구축할 수 있다. 이종범의 노련미도 KIA 순위 싸움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종범은 올 시즌 44타수 10안타로 0.227의 타율을 기록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 귀중한 안타를 터트리며 상대 공력에 힘을 더했다. 투·타의 불균형에 주전들의 출부상으로 이종범을 겪었던 KIA는 선발진의 안정과 나지완을 제외한 부상 선수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순위 싸움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 한편 돌아온 최희섭은 19일 복귀와 함께 4번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 김원섭·이범호와 클린업 트리오를 구축했다. 김상훈은 6번 타자로 그 뒤를 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4) 타이거즈 정신

1987년 해태 타이거즈는 시즌 내내 전년도 우승 후유증을 심하게 앓아야만 했다. 핵심 전력인 선동열은 개막 이틀 전에 연봉협상이 타결되는 등 전반적으로 스프링 캠프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채 불안한 상태로 시즌을 맞이해야만 했다. 호사다마라고 전년도 한국 시리즈의 영웅이었던 김정수는 윈슬렐행장애, 김성현은 최동원의 투구에 맞아 손목 부상, 김중모는 의사장터푸스 그리고 문희수·강상진·장재근 등의 입원으로 팀 주축 선수들이 장기간 전력에서 이탈하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신진대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으로 배태래 김용남과 강만식이 빙그레 이글스로 트레이드되는 아픔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수혜를 입어 아슬아슬하게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었다. 전주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4차전이 하이라이프였다. OB 베어스가 3-2로 앞서던 9회말 2사 3루에서 김성현이

개성 강한 선수들 끈끈하게 뭉쳐 팀 플레이로 상대 압도 묘한 매력

평범한 유격수 내야땅볼을 쳤다. 그러나 OB 유격수 유지환이 귀신에 홀린 듯 뒤로 한걸음 물러나며 주춤거리다 타구를 잡아 뒤늦게 1루에 송구했다. 쫓 먹던 힘까지 다해 ‘필사의 역주’를 한 김성현은 1루에서 세이프되며 극적인 동점을 만들었고, 연장 10회말에 OB 최일언의 폭투로 4-3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이 승리는 해태가 최일언에게 전년도부터 12연패를 당한 설움을 씻어낸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해태는 개성이 강한 선수 개인의 특성을 선·후배간의 엄격한 위계질서로 승화시켜 팀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묘한 마력을 지닌 팀으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쯤 일 것이다. 그런 이유로 훗날 개인플레이 성향이 짙은 타팀 선수들이 해태로 트레이드되면 마치 지옥에라도 가야 하는 것처럼 인식하여 매번 트레이드를 거부하는 촌극이 펼쳐지기도 했다. 해태 주축 선수들을 지켜보면 하나같이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개인플레이로 분위기를 만들 것 같지만, 막상 경기에 임하면 거미줄처럼 끈끈하게 뭉쳐 상대 팀을 압도한다. 이러한 무형의 자산을 ‘타이거즈 정신’이라 칭한다면, 훗날 삼성 라이온즈는 이 독특하고 귀한 자산을 막대한 현금으로 이전해 ‘한국 시리즈를 통한 우승’이란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해태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은 1986년 8월 27일 빙그레 이글스(광주)와의 경기부터 1987년 4월 12일 롯데 자이언츠(사직) 경기까지 무려 49와 3분의2이닝 동안 무실점이란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연합뉴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역시 탱크’

SK텔레콤오픈 1라운드
최경주 1타 차 공동 2위

최경주(41·SK텔레콤)가 파곤한 몸을 이끌고도 SK텔레콤오픈 골프대회(총상금 9억원) 1라운드에서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2위에 올랐다. 최경주는 19일 제주도 서귀포시 핀크스 골프장 동서코스(파72·7264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스코트 아널드(호주)와 함께 공동 2위로 1라운드를 마친 최경주는 6언더파 66타, 단독 선두에 나선 앤드리 스톨츠(호주)를 1타 차로 뒤쫓았다. 1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 비치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 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경주는 곧바



‘완도산 탱크’ 최경주가 19일 제주도 서귀포시 핀크스골프장에서 열린 SK텔레콤 오픈 2011 첫 라운드에서 갤러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시카고로 이동해 인천을 거쳐 17일 저녁 제주 도착 직후 프로암 전야 만찬에 참석했고, 18일에도 프로암 대회를 치르는 등 강행군으로 컨디션이 말이지 아니었다. 최경주는 1라운드를 마친 뒤에 “미국 시간으로 자정, 새벽 1시에 티오프를 하다 보니 눈이 침침해서 라이도 읽기 어려웠다”고 말했을 정도로

2번 홀(파3)에서 티샷이 그린을 넘겨 해저드 지역에 떨어진 바람에 언플레이어를 선언하고 1타를 잃었지만 이후로는 안전하고 노련한 경기 운영을 앞세워 타수를 줄여나갔다. 같은 조로 1라운드를 치른 배상문(25·우리투자증권), 김비오(21·넥슨)에 비해 거의 매홀 티샷 비거리는 가장 짧았지만 적절한 어프로치샷과 빼어난 퍼트를 앞세워 이

후 버디만 6개를 추가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지만 4개의 파5 홀에서 버디를 3개 잡아내는 노련미가 돋보였다. 특히 10번 홀(파5)에서는 그린 앞 벙커에서 시도한 세 번째 샷이 홀 바로 앞에서 멈춰 아쉽게 이글을 놓쳤지만 ‘벙커샷의 달인’다운 솜씨를 유감없이 보여주기도 했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서울 종로점을 4월5일 개점하였습니다!

지방에서 보청기 사용증 불편사항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옆)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35년연속 합격자수1위

상위권대학편입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영어.수학.TEPS

그동안 14만명 합격자 배출! 2011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원치않는 대학 재수보단 편입으로 인생역전!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뒤 062)227-8088 개강 매월1일 [kimyoung.co.kr]